

# 대(對)테러리즘 분야 연구경향분석:치안본부 대테러연구를 중심으로★

이대성\* · 류상일\*\*

## 요 약

국제사회는 서독 뮌헨올림픽에서 팔레스타인 테러조직 검은 9월단(Black September)이 이스라엘 선수단을 대상으로 자행한 인질·납치·살해 테러리즘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한국도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 무력도발, 국지전 등의 위협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1982년 1월 대통령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정하여 국가 대(對)테러리즘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였고, 국가안전기획부와 치안본부가 주무부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치안본부 시절 경찰의 대테러관련 역할을 고찰하고, 1983년부터 1990년까지 동 기관에서 발간한 『대테러연구』의 학문적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공통적으로 빈도가 높은 주제어는 “테러”, “인질”, “대책”, “국제” 등이다. 둘째, 88년 올림픽 전후로 “올림픽” 주제어가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셋째, 연도별로 차이점을 살펴보면, 83-84년에는 “관방정책” 주제어가 언급되었고, 85년에는 “대남테러”, “민간항공기” 등의 주제어가 언급되었으며, 86년에는 “기업체”가 언급되었다. 87년에는 “테러경향”이라는 주제어가 언급되었고, 90년에는 “국제테러리즘”, “분리주의” 등의 주제어가 사용되었다.

##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 of Counter-Terrorism: Focusing on Counter-Terrorism studies of the National Police Headquarters\*

Lee, Dae sung\* · Ryu, Sang Il\*\*

### ABSTRACT

International society got a severe shock from terrorism of hostage, abduction and murder that was committed on a target of Israel athlete delegation in Munich Olympics, West Germany by Black September, a Palestine terrorism organization. Korea with 1986 Asian Games and 1988 Olympics ahead was directly and indirectly exposed to threats of North Korea's nation support terrorism, a military provocation and a local war limited warfare. This study explores the roles of the police at the time of the National Police Headquarters with regard to counter terrorism, and analyzed academic research trends of Studies of Counter terrorism published by the same office between 1983 and 1990. Looking into them shows a fact firstly, that the most frequently appearing key words in common were “terrorism,” “hostages,” “measures,” and “international,” etc. Secondly, before and after 1988 Olympics, the key word “Olympics” was frequently addressed. Thirdly, looking at the difference by the year, the key word, “policies of defense and borders” was frequently addressed between 1983 and 1984, “terrorism against South Korea,” and “civil aircraft” frequently addressed in 1985, and “corporate” in 1986. In 1987, the key word “terrorism trends” was addressed, and in 1990, “international terrorism,” and “separatism” were used.

**Key Words:** Olympics, terror, terrorism, counter terrorism law, counter terrorism policy.

접수일(2014년 4월 30일), 수정일(1차: 2014년 5월 26일),  
게재확정일(2014년 5월 28일)

★ 이 연구에서 활용한 치안본부 대테러연구는 동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의 개인 연구결과들을 수록한 학술논문임을 밝힙니다.

\*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동의대학교/ 소방행정학과

## 1. 서론

1972년 9월 5일 새벽 4시, 팔레스타인 테러조직 검은 9월단(Black September)소속 테러범들은 기관총과 다량의 수류탄을 소지하고, 올림픽 선수촌으로 잠입을 시도하였다. 테러범들은 2명 또는 3명이 1개조가 되어 각각 다른 방향에서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로 잠입하여 이스라엘 코치와 도주하려는 선수들을 그 자리에 사살하였다. 테러리즘 발생 1시간 이후, 테러범들은 9명의 이스라엘 선수를 인질로 잡고, 이스라엘 형무소에 수감 중인 200명 테러범들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독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총리는 직접 협상을 시도하였고, 테러범들에게 헬기와 항공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서독을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협상안을 제시하였다. 테러범들도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스라엘 인질 10명을 헬기에 태우고 뮌헨 공항으로 장소를 이동한 후, 항공기를 이용하여 이집트로 출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뮌헨 공항에 잠복해 있던 서독 경찰관들은 테러범들이 헬기에서 항공기로 환승하려 도보로 이동하는 시점에 이들을 사살할 계획을 수립한 후, 실행에 옮겼다. 테러범들이 헬기에서 내려 항공기가 있는 장소로 이동할 때 테러범 3명이 사살되고, 나머지 테러범 5명도 즉시 응사하여 서독경찰관 1명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질로 억류되었던 이스라엘 선수와 임원 11명, 아랍 테러범 5명, 그리고 서독경찰관 1명이 희생되는 비극이 발생하였고, 뮌헨올림픽은 국제테러조직에 의해 악용(惡用)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1].

서독 뮌헨올림픽 이후, 각종 국제스포츠행사 개최시(時)에는 국제테러리즘에 철저히 대비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정부도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9년 서울올림픽 개최가 확정되면서 다양한 테러리즘의 심각성을 인식하였고, 국제테러리즘 대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국정부가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서독 뮌헨올림픽에서 발생한 국제테러리즘에 주목(注目)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독은 동독과 한국은 북한과 분단된 상태였다. 둘째, 서독은 2차 세계대전을 한국은 6·25전쟁이라는 폐허 속에서 각각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다. 셋째, 서독은 1972년 뮌헨올림픽을 한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

하였다. 넷째, 서독은 극좌성향 테러조직<sup>1)</sup>, 한국은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에 직·간접적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한국정부는 1982년 1월 대통령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정하여, 국가 대(對)테러리즘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되었고[3], 그 주무부서로 국가안전기획부와 치안본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치안본부의 역할을 살펴보고, 동 기관에서 발간한 『대테러연구』의 학문적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대(對)테러리즘 관련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논의

### 2.1. 치안본부의 역할

1950년 6·25사변과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동안 잠잠(潛潛)하던 북한은 1960년대 말부터 무력도발, 국지전, 국가지원 테러리즘 등과 같은 격화된 도발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8년 1월 21일 북한 인민군 정찰국은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하여 게릴라(guerrilla)들을 남파하였고, 1974년 8월 15일 영부인 육영수 여사를 저격하여 시해(戡害)하였다. 1974년 12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사건으로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1970년 12월, 「전투경찰대설치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973년 자연발생적으로 운영되던 방범대를 정비하여 방범원 제도로 정착시켜 준(準)경찰력으로 활용하였으며, 1976년 「용역경비업법」을 제정·시행하였다. 이 외에도 해외주재관과 외사과 등을 신설하였다[4]. 이를 통하여 치안본부는 범죄예방을 위한 민(民)·경(警)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대(對)테러리즘 업무 역량을 강화를 위한 초석(礎石)을 마련하였다.

### 2.2. 치안본부의 발간자료

내무부 치안본부는 7년 동안 『대테러연구』 총 13

1) 서독에서는 1969년대 후반부터 반자본주의(反資本主義)와 반미사상(反美思想)에 편승한 적군파(Rote Armee Fraktion)·붉은 분노(Rote Zora) 등의 극좌성향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리즘이 발생하였다[2].

편의 연구결과물을 출간하였다. 1983년 제1호, 1984년 제2호, 1985년 제3·4·5호, 1986년 제6·7호, 1987년 8·9호, 1988년 10호, 1989년 11호, 1990년12·13호를 발간하였다. 동 기관에서 출간한 『대테러연구』는 테러리즘을 연구하는 다양한 학자들의 개인 의견으로 동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학술 논문임을 밝히고자 한다.

### 3. 조사설계

#### 3.1. 언어네트워크방법론

언어네트워크방법론(semantic network analysis)은 최근 들어 등장하게 된 내용분석기법의 일종이다. 즉, 기존 전통적 내용분석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연구자의 주관적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에 컴퓨터의 활용성을 높인 연구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내 연구자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분석기법으로써, KrKwic(Korean Key Words In Context) 프로그램과 NetMiner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하는 분석기법이다[5][6][7][8][9][10].

#### 3.2.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과 절차

##### 3.2.1. 분석대상

<표1> 분석대상 논문

연도	분석대상 논문
83년(1회 발간)	9
84년(2회 발간)	9
85년(2회 발간)	24
86년(2회 발간)	23
87년(2회 발간)	26
88년(1회 발간)	15
89년(1회 발간)	0
90년(2회 발간)	29
합계	135편

대(對)테러리즘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을 위하여,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치안본부 『대테러연구』에 게재된 학술논문 135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198

4년 제3호와 1989년 제11호는 자료가 없어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3.2.2. 분석방법과 절차

이 연구의 분석방법과 연구절차는 크게 3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연구대상이 되는 연도별로 발간된 연구논문의 주제를 자료화·유형화시켰다. 둘째, 핵심단어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KrKwic 프로그램을 통해 1차적으로 분류를 시도하였다. 셋째, KrKwic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핵심단어에 대한 행렬매트릭스 방정식을 완성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NetMiner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핵심단어 간의 네트워크 연결망 또는 결합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특정한 핵심 키워드들이 어떠한 특정 형태로 제결합될 때 특정한 의미를 발생하기 때문이다[8][10]. 요컨대, 문서 내에서 핵심 단어를 찾아내고, 단어들 간의 관계를 부호화하며(encoding), 연계된 단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이를 다시 결합하고,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여, 그 의미를 재해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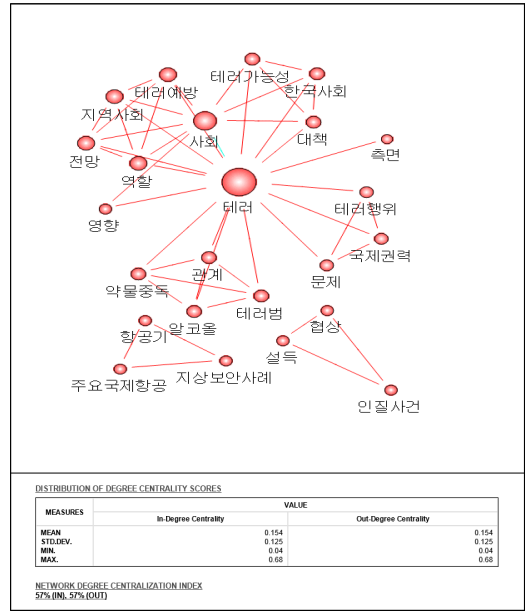
### 4. 분석결과

#### 4.1. 『대테러연구』의 연구주제어 분석

1983년부터 1990년까지 발간한 『대테러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첫째, 공통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난 주제어는 “테러”, “인질”, “대책”, “국제” 등이다. 둘째, 88년 올림픽 전후(前後)로 “올림픽” 주제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셋째, 연도별 차이점을 살펴보면, 83-84년에는 “관방정책” 주제어가 언급되었고, 85년에는 “대남테러”, “민간항공기” 등의 주제어가 사용되었으며, 86년에는 “기업체”가 언급되었다. 87년에는 “테러경향”이라는 주제어가 사용되었고, 90년에는 “국제테러리즘”, “분리주의” 등의 주제어가 언급되었다.

<표 2> 핵심 주제어

83년-84년		85년		86년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11	테러	9	테러	15	테러
5	인질	4	대책	4	대책
4	대책	4	인질	3	국제
3	국제	3	국제	3	대테러
3	테러범	3	대응책	3	발생
2	가능성	3	대테러	3	올림픽
2	관방정책	3	발생	3	인질
2	심리적	3	올림픽	3	테러리즘
2	인질사건	2	강화	2	기업체
2	전망	2	고찰	2	대미
2	측면	2	납치	2	방안
		2	대남테러	2	북한
		2	민간항공기	2	테러범
		2	방안		
		2	북한		
		2	사회적		
		2	예상		
		2	인질협상		
		2	테러리즘		
		2	테러범		
		2	테러범		



(그림 1) 1983년 연결중심성 네트워크 지도

87년		88년		90년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14	테러	5	인질	8	인질
3	대책	5	테러	8	테러
3	올림픽	4	올림픽	5	국제
3	인질	2	고찰	4	테러리즘
3	테러사건	2	국제	3	대테러
2	북한	2	서울올림픽	3	심리
2	역할	2	요령	3	인질협상
2	인질협상	2	인질협상	2	고찰
2	테러경향			2	국제테러리즘
2	테러방지			2	납치
2	폭발물			2	대테러작전
				2	북한
				2	분리주의
				2	이용
				2	전략
				2	폭발물
				2	폭발물

<표 3> 1983년 연결중심성 결과값

구분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테러	0.68	0.68
사회	0.36	0.36
역할	0.2	0.2
전망	0.2	0.2
지역사회	0.2	0.2
테러예방	0.2	0.2
관계	0.16	0.16
대책	0.16	0.16
알코올	0.16	0.16
약물중독	0.16	0.16
테러가능성	0.16	0.16
테러범	0.16	0.16
한국사회	0.16	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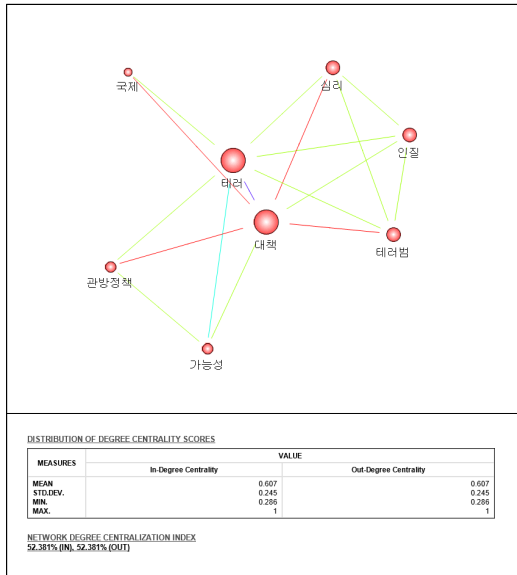
4.2.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한 「대테러연구」 연구경향의 패턴 분석

4.2.1. 1983년 「대테러연구」의 연구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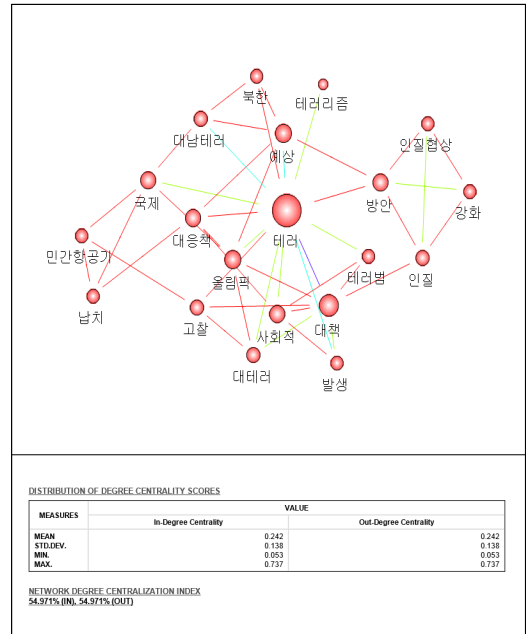
1983년 『대테러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테러”, “사회”의 주제어 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났고, “역할”, “전망” “지역사회”, “테러예방” 등의 빈도가 높았다.

4.2.2. 1984년 「대테러연구」의 연구경향

1984년 『대테러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테러”, “대책”의 주제어 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났고, “인질”, “심리” 등의 빈도가 높았다.



(그림 2) 1984년 연결중심성 네트워크 지도



(그림 3) 1985년 연결중심성 네트워크 지도

<표 4> 1984년 연결중심성 결과값

구분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테러	1	1
대책	1	1
인질	0.571429	0.571429
심리	0.571429	0.571429
테러범	0.571429	0.571429
가능성	0.428571	0.428571
관방정책	0.428571	0.428571
국제	0.285714	0.285714

<표 5> 1985년 연결중심성 결과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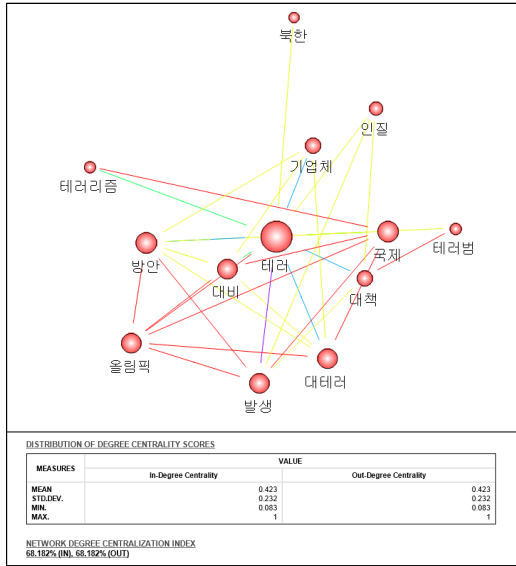
구분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테러	0.736842	0.736842
대책	0.421053	0.421053
올림픽	0.315789	0.315789
예상	0.315789	0.315789
국제	0.263158	0.263158
대응책	0.263158	0.263158
방안	0.263158	0.263158
사회적	0.263158	0.263158
인질	0.210526	0.210526
대테러	0.210526	0.210526
고찰	0.210526	0.210526
대남테러	0.210526	0.210526
발생	0.157895	0.157895
강화	0.157895	0.157895
납치	0.157895	0.157895
민간항공기	0.157895	0.157895
북한	0.157895	0.157895
인질협상	0.157895	0.157895
테러범	0.157895	0.157895
테러리즘	0.052632	0.052632

### 4.2.3. 1985년 『대테러연구』의 연구경향

1985년 『대테러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테러”, “대책”의 주 제어 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났고, “올림픽”, “국제”, “인질”, “대테러”, “대남테러” 등의 빈도가 높았다.

#### 4.2.4. 1986년 『대테러연구』의 연구경향

1986년 『대테러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테러”, “국제”, “방안”의 주제어 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났고, “대테러”, “올림픽”, “기업체”, “테러리즘” 등의 빈도가 높았다.



(그림 4) 1986년 연결중심성 네트워크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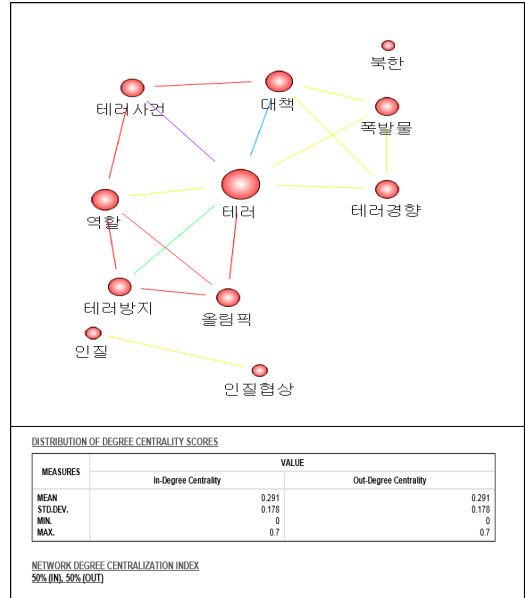
<표 6> 1986년 연결중심성 결과값

구분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테러	1	1
국제	0.583333	0.583333
방안	0.583333	0.583333
대테러	0.5	0.5
발생	0.5	0.5
올림픽	0.5	0.5
대비	0.5	0.5
대책	0.333333	0.333333
기업체	0.333333	0.333333
인질	0.25	0.25
테러리즘	0.166667	0.166667
테러범	0.166667	0.166667
북한	0.083333	0.083333

#### 4.2.5. 1987년 『대테러연구』의 연구경향

1987년 『대테러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테러”, “대책”, “역

할”의 주제어 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났고, “올림픽”, “테러경향”, “폭발물”, “인질” 등의 빈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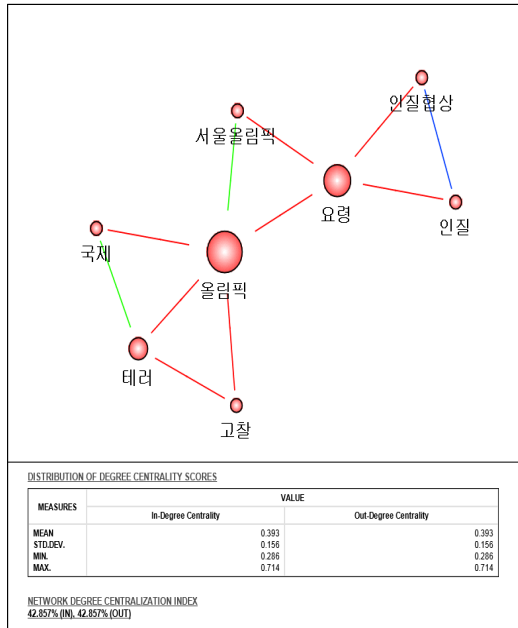
(그림 5) 1987년 연결중심성 네트워크 지도

<표 7> 1987년 연결중심성 결과값

구분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테러	0.7	0.7
대책	0.4	0.4
역할	0.4	0.4
올림픽	0.3	0.3
테러사건	0.3	0.3
테러경향	0.3	0.3
테러방지	0.3	0.3
폭발물	0.3	0.3
인질	0.1	0.1
인질협상	0.1	0.1
북한	0	0

#### 4.2.6. 1988년 『대테러연구』의 연구경향

1988년 『대테러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올림픽”, “테러”, “인질”의 주제어 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났고, “국제”, “서울올림픽” 등의 빈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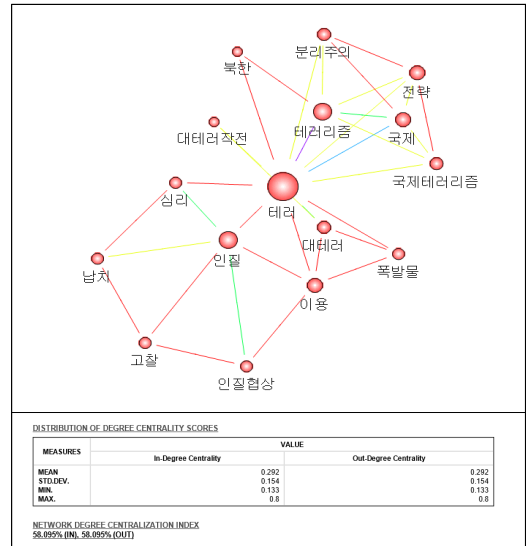
(그림 6) 1988년 연결중심성 네트워크 지도

<표 8> 1988년 연결중심성 결과값

구분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올림픽	0.714286	0.714286
요령	0.571429	0.571429
테러	0.428571	0.428571
인질	0.285714	0.285714
고찰	0.285714	0.285714
국제	0.285714	0.285714
서울올림픽	0.285714	0.285714
인질협상	0.285714	0.285714

#### 4.2.7. 1990년 『대테러연구』의 연구경향

1990년 『대테러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테러”, “인질”, “테러리즘”의 주제어 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났고, “국제”, “대테러”, “국제테러리즘”, “분리주의” 등의 빈도가 높았다.



(그림 7) 1990년 연결중심성 네트워크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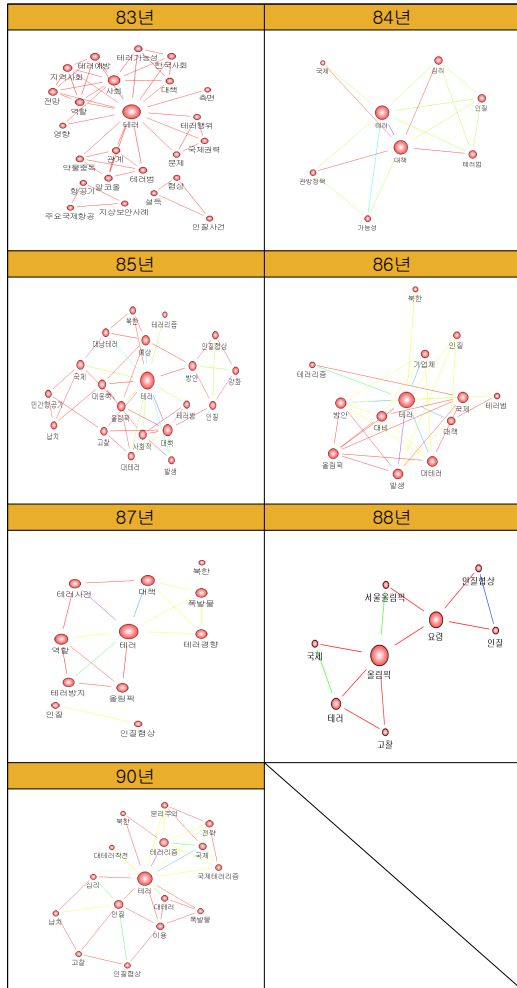
<표 9> 1990년 연결중심성 결과값

구분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테러	0.8	0.8
인질	0.4	0.4
테러리즘	0.4	0.4
국제	0.333333	0.333333
이용	0.333333	0.333333
전략	0.333333	0.333333
대테러	0.266667	0.266667
국제테러리즘	0.266667	0.266667
분리주의	0.266667	0.266667
심리	0.2	0.2
인질협상	0.2	0.2
고찰	0.2	0.2
납치	0.2	0.2
폭발물	0.2	0.2
대테러작전	0.133333	0.133333
북한	0.133333	0.133333

##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치안본부 시절 경찰(警察)의 대(對)테러

관련 역할을 고찰하고, 1983년부터 1990년까지 동 기관에서 발간한 『대테러연구』의 학문적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그림 8) 전체 연결성 네트워크 지도

그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공통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주제어는 “테러”, “인질”, “대책”, “국제” 등이다. 둘째, 88년 올림픽 진후로 “올림픽” 주제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셋째, 연도별로 차이점을 살펴보면 1983-1984년에는 “관방정책” 주제어가 언급되었고, 85년에는 “대남테러”, “민간항공기” 등의 주제어가 사용되었으며, 86년에는 “기업체”가 언급되었다. 87년에는 “테러경향”이라는 주제어가 사용되었고, 90년에는

“국제테러리즘”, “분리주의” 등의 주제어가 언급되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치안본부 시절에 발간된 『대테러연구』의 대(對)테러리즘 관련 연구경향은 인질테러와 관련된 연구와 올림픽 테러리즘을 대비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치안본부에서 발간한 『대테러연구』가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의 학술 논문이라고 하지만, 국가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료이므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학술단체 학술지에서 발간하는 논문과 상이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즉, 동 논문집에 게재된 연구논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고,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이 현재까지 짜임새 있는 연구방법론으로써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을 활용한 연구경향 분석 결과가 다소 실험적 일 수 있다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 자료가 테러리즘 관련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치안본부, 「테러는殘忍한 것」, 치안본부, 1987.
- [2] 국가정보원, 「2006 독일월드컵 참가자 안전가이드」,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2006.
- [3] <http://www.law.go.kr/main.html>: 검색 2014. 4.7.
- [4] 김창운 외, 「경찰학」, 박영사, 2014.
- [5] Pinkley, R. L, “Dimensions of conflict frame: Disputant interpretations of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5: 117-126, 1990.
- [6] 박한우·Leydesdorff, L, “한국어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Daum.net에서 제공된 지역혁신에 관한 뉴스를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6(5): 1377-1388, 2004.
- [7] Rice, R. E. & Danowski, J. A, “Is it really just like a fancy answering machine? Comparing comments and semantic networks about voice mail”, *Journal of Business Communication*, 30: 369-397, 1993.
- [8] 사이람, 「넷마이너에 의한 사회네트워크 분석」,



사이람, 2010.

[9] Lim, Elvin T, "Five trends in presidential rhetoric: An analysis of rhetoric from George Washington to Bill Clinton",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32(2): 328-366, 2002.

[10] 김용학, 「사회 연결망 이론」, 박영사, 2004.

---

[저자 소개]

---



**이 대 성 (Lee, Dae Sung)**

1997년 동국대학교 법학사  
2000년 동국대학교 법학석사  
2004년 동국대학교 형사학박사  
現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email : dorian3145@daum.net



**류 상 일 (Ryu Sang Il)**

2001년 청주대학교 행정학사  
2003년 충북대학교 행정학석사  
2007년 충북대학교 행정학박사  
現 동의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교수

email : samuel@deu.ac.kr